

“검찰개혁 저항 집단행동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민주 이성운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에
김건희특검 파견검사의 복귀 성명에 “검찰 전체가 개혁에 저항”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운(전주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검찰개혁을 흔드는 집단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페이스북에 밝혔다.

국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소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대검찰청이 폐지됐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 차장은 이를 두고 “매우 참담하다”고 언급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건희 특별감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최근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하면서 더욱 논란이 확산됐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개별 의견 표명이 아니라 검찰 전체가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로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파견 검사들은 공무원 신분이고,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을 지

켜야 한다. 특검 파견은 국민이 요구한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집단행동이나 조기 복귀 움직임으로 수사가 차질을 빚는다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저항과 정치권의 대응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전주 신중양시장을 방문해 명절 준비에 나선 한 상인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실속 있는 장보기, 답은 전통시장서’

김관영 도지사, 추석 맞아 전주 신중양시장 방문 상인 격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전주 신중양시장을 방문해 명절 준비에 나선 상인과 도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도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며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 공동체에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 첫날로, 혜택을 받으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며 명절 물가를 살폈다. 이어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덕담을 건넸다.

이날 전주시 지역구 도의원들도 시장 곳곳을 누비며 상인과 시민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반봉현 신중양시장 상인회장은 “전

주 중심에서 오랜 세월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신중양시장 상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웃는 얼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하고 정겨운 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라며 “전통시장이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조사 결과, 올해 전주 지역 전통시장의 추석 차례상 평균 비용은 20만1,879원으로, 대형마트 평균 24만5,424원보다 4만3,545원(17.8%) 저렴해 전통시장이 명절 장보기에 경제적인 선택지로 나타났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정청래 대표, 추석 맞아
오늘 김제 전통시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5일장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2일 오후 김제를 찾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김제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시장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방문과 관련해 당 대표실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가 없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대공법 개정 등 전북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전북 명에 도민증을 수여받은 바 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軍,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제77주년 국군의 날 맞아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의 국군 성취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결연한 투지, 호국영령의 넋, 그리고 56만 국방 가족의 헌신 덕분”이라며 국민과 장병, 방산기업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와 시민이 참석했으며, 장병들의 능률한 모습과 첨단 전력 전시가 함께 진행돼 세계적 강군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안 장관은 기념사에서 이번 국군의 날이 “12·3 내란 이후 처음 맞는 기념식”임을 강조하며, 과거의 어두운 역사도 직시해야 한다고 말



했다. 그는 “다시는 내란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며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개혁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장관은 내란 종식과 국민의 군대 재건을 위해 강한 양면의 ‘투트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 조치로 △특전사 현장지도, △대장 7인 정원 교체, △위법명령 거부 장병 포상,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정신교육 과목 신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발족, △보직 경로 재설계 등을 제시하며 “물

갑이를 넘어 물고기를 바꾸는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특히 “대다수 군인들은 내란에 따르지 않은 정상세포와 같다”며 일부 내란 세력은 엄벌하되, 헌신한 장병과 안보 태세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중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기념사를 마치며 “국군은 국민의 품으로, K-방산은 세계의 품으로, 한반도는 평화의 품으로 나아가겠다”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만큼은 국군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포상받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 등 장병 11명에게도 격려와 신뢰를 전하며, 국민 주권정부의 국방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만호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탈탄소 전환 역사적 이정표”

민주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무주·진안)이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관련해 의미 있는 소회를 밝혔다.

안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단순한 부처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탈탄소와 녹색문명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중심으로, 21개 공공기관과 28개



관련 법률, 7만5천여 명의 인력이 함께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구성된다.

안 의원은 “이제 거대한 엔진이 본격적으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며

특히 안 의원은 기후위기를 “미래의 과제”가 아닌 “오늘의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

대, 대기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모든 과제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임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하나의 틀 안에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환노위원장으로서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든든히 뒷받침하며,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전환의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대한민국의 탈탄소·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며, 향후 환경·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민간기업 출연 비중 절반 못미쳐

1165억원으로 41.9%에 불과... 민주당 윤준병 의원 “제도 개선 필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중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목표액의 30% 수준에 그치고, 민간기업의 출연 비중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금 설치 이후 올해 8월까지 모인 금액은 총 2,780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크게 못 미쳤다.



이 중 공공기관 출연액이 1,607억원(57.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민간기업 출연액은 1,165억원(41.9%)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조성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경우 같은 기간 2조 3,000억원 이상이 모였고, 민간기업 출연 비중은 84%에 달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재계 상위 9대 그룹이 농어촌상생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580억원에 그쳤지만, 대중소기업상생기금에는 1조 3,000억원 넘게 출연해 24배의 격차를 드러냈다.

윤준병 의원은 “FTA로 혜택을 본 대기업들이 정착 농어민과 농어촌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며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출연 의무 강화, 기금 조성 기간 연장, 일반회계 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사람, 자연, 기술이 함께하는 농어촌 플랫폼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람중심, 자연과의조화,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분류확실한 미래 환경에서 농어촌의 지속발전을 이끌어 나가며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으로 농어촌의 희망, 내일의 우리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새마음

농생명산업의 첨단화 친환경 농업실현 복합 농생명융지 조성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농업기술대학
농업기술연구소
농업기술개발사업
농업기술지원사업
농업기술협력사업
농업기술연구사업
농업기술개발사업
농업기술연구사업